

안녕하십니까?

입동이 지나 다소 쌀쌀해졌습니다. 맘 편히 저울을 따스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열새 간격으로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국규모 대회로 막중한 부담과 책임감이 있었으나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잘 치러 냈다는 평가를 받았습시다.

또한 역대 체전 참가 이래 우리 강원도는 전국체전 2위, 전국장애인 체전 4위라는 강원체전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선수, 지도자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2대 체전은 한 건의 사고 없는 안전하면서도 완벽한 체전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장, 깔끔한 숙박시설, 교통질서 유지, 경기장 안내소 운영, 관람객 질서 유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어느 것 하나 도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시도 선수단과 해외동포 선수단에 대한 따뜻한 영접, 도민 서포터즈와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와 응원으로 참가 선수단과 손님들로부터 감사의 인사와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시다.

대회 기간 내내 밤낮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도민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는 또 하나의 감동으로 체전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체전을 통해 우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최고의 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체전에서 얻는 경험과 역량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 강원도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